

토론문

김민정 (충남대학교 / 부교수)

제목: 청소년의 금융사회화가 금융역량과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금융태도는 가정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비롯되며 금융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선호체계를 좌우하게 됩니다. 디지털 금융서비스 및 핀테크의 발달로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금융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의 급상승과 폭락, 암호화폐에 대한 비이성적 투자, 도박 관련 정보들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한탕주의에 빠져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편향된 미디어와 검증되지 않은 주변의 정보들을 통해 잘못된 금융태도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이성적 재무관리행동으로 이어져 거시경제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금융사회화가 금융역량과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다룬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금융역량을 구성하는 금융지식과 태도, 역량 중 금융태도에 주목하고, 교육 및 사회화를 통해 올바른 금융태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시되는 금융이해력 조사에서는 금융태도 점수가 지식, 태도, 행동 중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태도는 대개 소비와 저축, 현재와 미래, 돈의 존재가치 등에 대한 선호도로, 저축이나 미래를 선호할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금융지식이 낮거나 가계 소득이 낮은 청소년 그룹에서 화폐에 대한 인지나 행동 차원의 태도에 있어 부정적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융태도는 개인의 경험, 성격, 성장배경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금융사회화의 대행요인을 가족, 또래집단, 학교, 미디어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모와 또래집단에서는 돈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학교와 미디어는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각 대행요인의 형성 구조와 내용을 조금 더 심도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금융사회화의 핵심 요인을 파악한다면 금융소비자 교육 및 정책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